

5월 광주, 그날의 단죄가 시작된다

'1980년 5월 대한민국 국군이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했다.' 당시 군의 최고 권력자는 대한민국의 11대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26년 후 복수는 시작되었다.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 '올게하소서'가 흐르며 자막이 스쳐 지나간다. 모차르트 교향곡 25번을 배경으로 '그 사람'을 단죄하기 위한 주인공들의 모습이 전개된다. 최근 공개된 영화 '26년' 예고편 영상의 내용이다.

1980년 5월 광주를 소재로 한 영화 '26년' 개봉일(11월 29일)이 확정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국영화로는 처음으로 서울시청 광장에서 대형 콘서트가 열리는가 하면, 영화 OST도 무료로 배포된다. 또 투자자 3만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26년' 제작을 포기하지 않았고, 올해 들어 '영화 제작 두레'라는 형식을 빌어 투자자를 모으기 시작했다. 2만 원, 5만 원, 29만 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제작두레에는 2만624명이 참여했고, 모아진 금액은 7억4500만 원에 달했다. 공지영·김제동 등 유명인사들의 참여가 이어졌으며 광주광산구청은 단체로 모금에 참여하기도 했다. 특히 1호 투자자인 가수 이승환은 재능 기부 형식으로 음악감독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16일 오후 8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26년 서울광장 콘서트'가 열린다. 주최측은 '영화 '26년'이 모두가 함께 만든 영화, 우리가 함께 봐야 하는 영화라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콘서트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5·18 소재 영화 '26년' 29일 개봉 확정

2만명 십시일반 7억원 모금 제작 참여

콘서트·OST 배포·대규모 시사회 화제

시사회도 준비돼 있다.

인기작가 강풀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26년'은 5월 광주의 비극과 연관된 조직폭력배, 국가대표 사격선수, 현직 경찰, 대기업 총수, 사설 경호업체 실장이 26년 후 바로 그날, 학살의 주범을 단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벌이는 액션 복수극이다.

어머니를 잃고 전직 대통령 직책을 노리는 심미진 역으로 한혜진, 계엄군에 의해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후 함께 슬픔에 나서는 건달 박진배 역으로 진구가 출연하며 이경영·배수빈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특히 '그 사람'으로 출연하는 배우 장광은 영화 '도가니'를 통해 익숙한 얼굴로, 외모 등이 흡사해 벌써 화제가 되고 있다.

'26년'이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시민들이 십시일반 제작비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점이다. '26년'은 지난 2008년부터 영화화를 추진했지만 투자와 관련한 '외압설' 등이 불거지며 촬영 시작 며칠 전에 투자가 철회되는 우려곡절을 겪었던 작품이다.

'괴물' 제작사인 영화사 청어람은

류시현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콘서트는 그룹 장미여관과 브로콜리 너마저의 공연으로 문을 열어 강풀작가, 조근현 감독과 한혜진·진구 등 주연배우들의 시네마토크쇼가 이어진다. 마지막 무대는 가수 이승환의 미니콘서트로 꾸며진다.

14일 공개된 '26년'의 주제곡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승환을 비롯, 윤도현·호란 등 인기가수 30명과 주역 배우들이 코러스로 함께 참여한 주제곡 '꽃'은 이승환이 2003년 발표한 동명의 곡을 영화 분위기에 맞춰 웅장한 합창곡으로 편곡한 노래로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다.

또 윤상·김종서·이석훈 등이 참여한 또 다른 버전도 무료로 공개할 예정이다.

22일부터는 제작 두레에 참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3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사회가 열린다. 광주에서는 27일 메가박스 상무점에서 열린 예

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500년전 그리스 비극 '안티고네' 무대로

푸른연극마을 18일까지 콘텐츠산업센터 영상관

2500년전 그리스 작가가 쓴 작품이 2012년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푸른연극마을이 소포클레스의 동명의 비극을 1942년 프랑스 작가 장 아누이가 현대적으로 재창조한 '안티고네'를 18일까지 광주 콘텐츠산업지원센터 영상관(옛 사직공원 KBS 광주방송총국) 무대에 올린다.

'안티고네'는 올해로 창단 19년을 맞는 푸른연극마을이 처음으로 외부 연출가인 양혁철씨에게 의뢰한 작품이다.

아버지 오이디푸스와 두 오빠의 죽음으로

새로운 왕이 된 안티고네의 삼촌 크레온은 왕권 회복과 질서 회복을 위해 작은 오빠를 폭도로 규정하고, 장례를 금하는 포고령을 내린다. 아무도 그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지만 안티고네는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우다 결국 죽음에 이른다.

추악한 정치의 이면이 드러나고, 신념과 자유와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곱씹어 보게 만든다. 양혁철 연출가는 지금까지 광주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스타일의 작품을 만들어냈다.

비스듬히 경사진 무대는 특별한 장치도 없고, 소품도 의자 몇개 뿐으로 아주 단순하지만 오히려 강한 인상을 남긴다. 특히 임팩트 있는 음악이 긴 여운을 남기며 적재적소에 쓰인 조명도 눈길을 끈다.

극 내내 출연하며 중심을 잡아야 하는 안티고네 역의 서울 배우 윤정선은 안정된 발성과 연기로 안정감을 준다. 안티고네와 대립각을 세우는 크레온 역의 윤희철은 끝없는 대사를 쏟아내고 감정을 폭발시켜야 하는 배역을 능란하게 표현했지만 지난 9일 공연에서는 대사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아쉬웠다. 문의 062-511-244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알록달록...여기가 미술관?

최인선전 21일까지 공동 테미화랑

눈부실 정도로 화려하면서 알록달록한 색들이 전시관 벽면을 가득 채운다. 서로 다른 공간이 한 화폭에 합쳐진 듯 하지만 다른 조각들이 모여 또 하나의 통일된 작품으로 만들어져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서양화가 최인선씨가 21일까지 광주시 동구 공동 테미화랑에서 여는 전시는 화려한 색채 사이로 추상과 구상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독특한 작품 세계를 마음껏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다.

이번 전시는 최씨가 지난 2000년 이후 12년 만에 광주에서 여는 개인전으로, 알록달록하면서 맑은 '미술관 실내' 시리즈를 비롯한 회화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기존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 본성, 여기에 물질과 인간이 만나서 형성되는 흔적 등을 보여주면서 존재론적 의미와 예술성의 접목을 시도해온 작가의 독특한 작품 세계가 고



'미술관 실내'

스란히 드러난다.

쉽게 다가서기 '어려운' 주제를 내걸었음에도, 역동적인 붓놀림과 화려함 가득한 화면으로 거부감 없이 작품에 빠져들게 된다.

'풍경적 추상'을 시도한 데 따른 서정성, 색채가 교차하면서 느껴지는 울동감이 풍부하다. 문의 070-4388-9505.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예향의 젊은 작가를 찾습니다

27일까지 광주 미술상 공모

광주미술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우제길)는 지역 젊은 작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제 18회 광주미술상 후보자를 오는 27일까지 공모한다.

광주·전남에 연고를 두고 있는 30세 이상 45세 미만 작가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최근 3년 이내에 제작한 작품 사진을 담은 포트폴리오 등을 광주미술상 운영위원회 사무처로 제출하면 된다.

다음달 7일 광주미술상 실무위원회의 서류 심사를 거쳐 3명의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뒤 운영위원회에서 당선자를 결정한다.

상금은 본상 1000만원, 차석 2인에게 100만원씩 수여된다.

광주미술상은 지난 1995년 광주·전남에 연고를 둔 원로, 중견 미술인들이 후배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 운영하고 있는 상으로, 광주·전남미술인공공단체를 비롯해 송필용·고 김동하·주홍·문인상·박동신·이준석·박종석·주재현·이이남·조성호·나명규·김숙민·김도기·신창운·임병중·박현수·김진화·진시영씨 등이 수상했다. 문의 010-2608-2730.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16·17일 호남 학술 교류 포럼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과 전남대 호남한문고 전문연구실이 주최하는 호남 지역 학술 교류 포럼이 16~17일 이틀간 금수장 호텔에서 열린다.

'호남학 발전,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호남지역의 대학 연구소, 유관기관, 향토문화단체, 시민문화단체 등 호남학과 향토사를 연구하는 7개 기관이 참여하는 행사다.

1부에서는 '지역문화와 호남학 진흥을 위한 정부 정책'이라는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 한민고 지역민족문화과장이 특강을 한다. 2부 토론회는 김대현 전남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육(순천대)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신현미(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연구원)씨 등이 참여한다. /김미은기자 mekim@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 (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연말 송년모임 예약 받습니다.

2012년을 보내는 뜻깊은 자리를 금수장 호텔 아리랑 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